



농림축산식품부

동 정

정부혁신
보다 나은 **정부**

2019년 9월 1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김수일(044-201-1791), 서기관 강승규(1794)/제공일: 9월 16일(총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 차관, 제13호 태풍 피해복구 대책회의 개최

□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.16(월) 08:30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태풍 '링링' 피해복구 대책회의를 개최 하였다.

○ 이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우리 농업부문에 상당한 피해*가 발생했으며 계속된 비와 추석연휴로 복구여건이 좋지 않았지만,

* 9.15일 22시 현재 농작물 피해 29천ha, 인삼시설·비닐하우스 파손 414ha, 가축폐사 24천수 등

○ 유관기관, 군경, 자원봉사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의 많은 노력으로 응급복구에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.

□ 또한 향후 후속대처와 추가 복구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,

○ 특히 충남과 전남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벼 흑·백수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피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,

* 벼 흑수(黑穗) : 이삭이 팬 이후 태풍으로 벼알이 상처를 받아 7~10일 후 이삭이 검게 변하며 결실 불량

* 벼 백수(白穗) : 이삭이 팬 이후 태풍 피해로 1주일 정도 경과후 이삭이 하얗게 마르는 현상

○ 낙과된 사과, 배에 대한 가공용수매(5천톤) 지원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